마하사, 무허가건물 양성화 준공검사 得

3월 27일, 9개 동 준공검사 得
개축 및 보수 불사 기틀 마련
전통사찰 건축 규제 모범사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마하사가 무허가 건물 양성화 절차를 진행해 3월 27일 준공검사를 획득했다. 사진은 마하사 경내 모습.

부산 최고(最古) 사찰 마하사(주지 정산)가 무허가 건물 양성화 절차를 진행해 3월 27일 준공검사를 획득했다. 마하사는 무허가 건물 양성화 절차로 합법적인 준공검사를 받아 앞으로 건축 개보수 및 사찰 건물 보수 공사 등 증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마하사 주지 정산 스님은 3월 31일 경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준공검사 획득은 복잡한 행정절차 및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전통사찰에 반가운 사례로 남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허가 건물이었던 전각 9개를 한꺼번에 준공검사를 받았다. 이런 성과는 그동안 전국 사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다. 함께 노력해준 부산불교연합회와 연제구 공무원을 비롯해 기도해준 모든 불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마하사는 11개 전각 가운데 지장전, 나한전, 설법전, 종각, 초당, 방하착 문서고, 다각실, 창고, 화장실 등 9개 건출물이 무허가 상태였다. 이번 준공검사 획득으로 해당 건축물은 건축대장에 정식 등재되어 마하사는 앞으로 합법적으로 증개축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각종 규제로 건축물 보수나 신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통사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법을 적용해 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고 철거명령까지 응해야 하는 불공정을 감당해야 한다.

〈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이 1987년에 제정된 후 30여 년 동안 정부와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좁히고자 노력해왔다. 불교계의 개선요구에도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전통사찰 개발을 규제하고 있으며 여전히 불교계에서 불이익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이번에 준공검사를 획득한 마하사 전각 대다수가 1960년에서 1980년대 사이에 지어졌다. 이때 당시에는 〈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이 없었고 지자체에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관념이 없었다. 현행법상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전통사찰의 노력이 다각화로 이뤄지지만 지자체의 건축과, 녹지과 등에서 적용하는 법안이 상충되고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정산 스님은 "주지 취임 이후 마하사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왔다. 하지만 전통사찰보존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손발이 묶여 있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2년 6개월간 마하사에 가해진 불공정 규제를 해소하고자 노력을 다했다.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고 부산 불교 최초 사찰이라는 마하사의 위상에 맞는 사찰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전통사찰이 마하사와 비슷하게 1960년과 1970년대에 지어진 경우가 많다. 당시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개념이 없었고 그로 인해 강제이행금과 과태료 등 상당한 불이익을 현재 받고 있다. 비상식적인 규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전통사찰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최초 사찰인 마하사는 신라 미추왕 재위시절 아도화상이 창건했다. 황령산 봉수대에 식량 보급지로 역할을 해왔으며 마하사 주위에 시릿대나무를 심어 왜적의 침입에 대비해 화살 제작을 하기도 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후 조선 숙종 때 신도 박성우가 초암 형태로 대웅전과 나한전을 지은 후 중건 불사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마하사는 오랜 역사만큼 '불씨를 구해준 나한과 동지팥죽', '참새를 쫓아낸 나한', '소리 나지 않는 금구'와 같은 다양한 설화도 가지고 있다. 마하사는 저녁 종소리가 아름다워 '수영8경' 중 하나로 손꼽히는 명찰이다. 부산시 문화재 21점(사찰문화재 4점 포함), 사찰문화재 7점, 범어사 성보 박물관 기탁 9점 등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통도사, 불기2567 보살계 산림법회 봉행

4월 16일~18일, 3일 간 법석
〈범망경〉 보살계본에 근거해
10중계 · 48경계 설법 예정



통도사가 4월 24~26일 금강계단서 '불기2567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한다. 사진은 2017년 보살계 수계산림법회 모습.

계율근본도량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내 금강계단에서 '불기 2567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한다.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 입재법회는 4월 24일 오전 9시 30분 경내 설법전에서 열린다. 오전 입재불공을 시작으로 입재식 및 설계(設戒)가 진행된다. 둘째 날인 4월 25일에는 오전 불공에 이어 설계 후 마무리 되며, 회향일인 4월 26일에는 오전 7시부터 설법전 앞에서 계첩 배부가 진행된다. 오전 8시 불공 후 오전 9시 10분 설법전에서 수계식 및 영축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된다. 이후 참가자들은 계첩을 보자기에 싸서 등에 지고 금강계단 앞에서 스님의 연비를 받은 뒤 사리탑을 돌며 회향한다.

이번 보살계 수계산림에는 전계대화상인 영축총림 율주 덕문 스님을 비롯해 3사 및 7증사 스님이 3일 동안 〈범망경〉 보살계본에 근거해 10중계(重戒)와 48경계(輕戒)를 설할 예정이다.

통도사는 보살계 동참자를 격려하고 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회향법회에서 특별한 시상식을 마련한다.

통도사는 매년 보살계를 위해 전국에서 찾아온 불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한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통도사는 10회 · 15회 · 20회 수계자에게는 기념메달을 전달하고 25회 · 30회 · 35회 · 40회 수계자들에는 성만패를 증정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매년 참가 동기를 높이고 보살계를 지키고 불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하도록 도와 신심을 고취한다. 아울러 인재불사를 위한 나눔도 이어진다. 영축총림 강원과 율원에서 수행 및 정진하고 있는 학인 스님들을 지원하기 위해 영축장학회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통도사는 "세계문화유산 통도사는 계율근본도량이다. 개산조 자장 율사는 부처님의 금란가사와 진신사리를 봉안해 모신 금강계단을 수계 증명단으로 삼았다"며 "자장율사의 계율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어가기 위해 보살계 산림법회를 봉행한다. 널리 동참해 인연공덕을 맺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055)382-1288.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파라미타, 2023년 정기총회 개최

3년 만에 대면으로 총회 열어
"분회 활동 활성화 적극 지원"



사단법인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총재 보운 · 이하 부산파라미타)가 3월 31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2023 부산파라미타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대면 총회이며, 대면화 시기를 맞아 발대식, 부산문예창작마당, 연등축제 등 분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부산파라미타는 분회활동으로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학생들의 사회관계 증진에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정기총회에는 범어사 포교국장 눌은 스님과 백명숙 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기총회는 성원보고, 개회선언, 격려사 및 인사말씀, 위촉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감사결과 보고와 안건심의로 예산심의를 진행했다.

총재 보운 스님은 인사말 대독을 통해 "미래의 동량인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산 파라미타에 감사하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구성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에게 좋은 가르침을 선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명숙 협회장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행사를 진행하고 서면으로 인사말을 대신해 아쉬움이 많았다"며 "청소년을 위해 앞으로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노력이 청소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남해 용문사, 어르신 무료 점심공양

남해 마을 2000여 어르신 대상



남해 용문사(주지 승원)가 3월 29일부터 한 달 동안 남해 일대를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한다.

이번 점심 공양 나눔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효사상을 실천하고 지역 어르신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용문사는 남해 용소리 마을을 시작으로 남해군 관내 마을 22개와 인근 마을 1개를 포함해 총 23개 마을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3월 29일 남해읍에 소재한 한우식당에서 첫 행사가 열렸으며, 행사에는 주지 승원 스님과 장충남 군수, 지역 군의원 등 관계자가 동참했다.

공양 행사에서 주지 승원 스님은 "이번 무료 점심 공양은 농촌에 홀로 남은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잠시라도 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마을 어르신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정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불교교육대학, 호국영령 수륙대재

'칠천량 · 장문포해전 호국영령 수륙대재' 4월 16일 장목항서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과 화엄승가회(회장 자인)가 4월 16일 오전 10시 거제시 장목항에서 '칠천량 · 장문포해전 호국영령 수륙대재'를 봉행한다.

이번 수륙대재는 거제 칠천량해전에서 숨진 1만여 호국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열리며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창생와 화엄승가회 소속 사찰 신도 1000여 명 및 지역민 등 3000여 명의 대중이 함께할 예정이다.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은 "칠천량해전은 최근 영화 '명량'과 '한산'의 연이은 흥행으로 조명 받은 전투"라며 "임진왜란 해전 중 유일한 패전으로 기록된 전투이며 병사 1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투로 아픈 역사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칠천량해전이 비록 왜적에게 패한 치욕의 역사라 할지라도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의미로 칠천량 · 장문포해전 호국영령 수륙대제를 봉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오프라 윈프리는 왜 명상에 열광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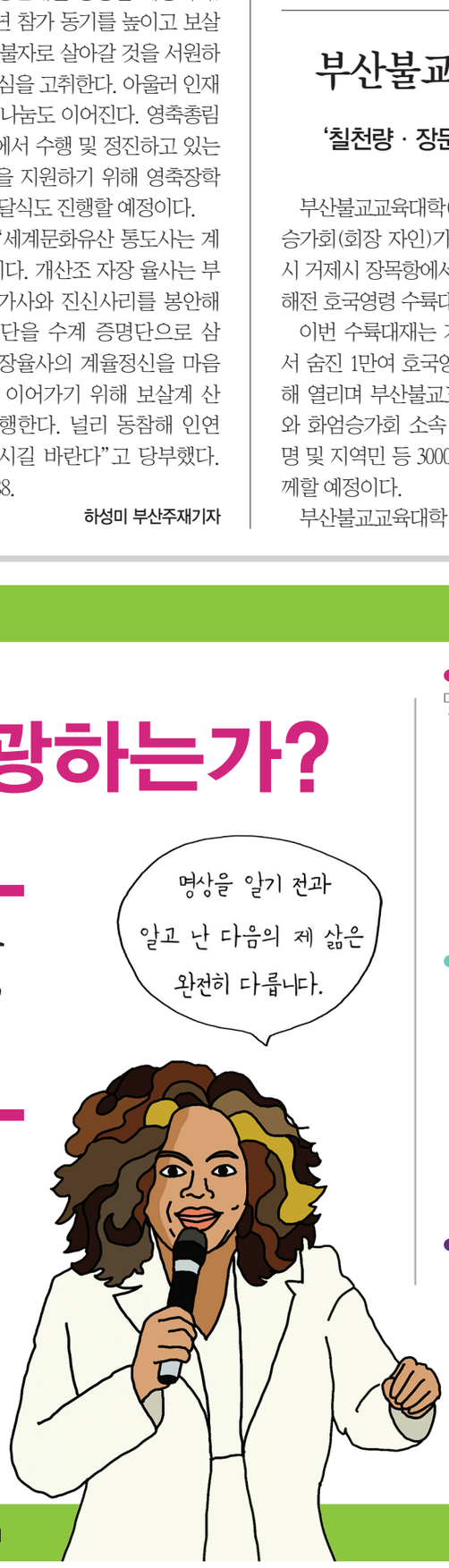
화제의 신간



글 혜명 김말환 · 그림 배종훈 | 192쪽 | 15,800원

"제가 명상을 하면 1000%는 더 나은 사람이 되거든요."
–매일 제 중심을 잡고 저를 위해 명상을 하는 겁니다–

성공의 필수 습관이 된 명상!
스티브 잡스, 빌게이츠, 마이클 조던은
왜 명상에 열광하는 걸까!
뇌과학을 통해 증명된
명상의 중요성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 도표로 읽는 유식 입문
마음을 바르게 보는 매커니즘을 밝혀 심리 작용을 알려주는 마음 입문서!

●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
불교의 깊이와 지혜를 담아낸 본격 불교 교리 입문서!



●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붓다의 생애, 가르침, 역사, 계율, 교단 성립이 한눈에!

●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뜻 모르고 독송하던 천수경의 자상한 해설서!

●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
부처님 생애를 일상어로 풀어낸 최고의 불교 입문서!

●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반야심경, 금강경, 화엄경 등 중요 경전(20종)의 요점을 한눈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